

파국 치달는 조선대 총장 선거

교수평의회 “이사회 배제 대자협 주도로 선출”...이사회 대응 주목

총장 선거를 둘러싼 조선대 이사회·구성원간 갈등이 이사회를 배제한 독자적 총장 선거로 치러질 조짐을 보이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법적 의결기구인 조선대 이사회를 배제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이사회 총장 임명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6일 오후 5시 임시총회를 열고 총장 선거 참여 비율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거부하는 한편, 이사회를 제외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주도의 독자적 총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수평의회는 이날 이사회의 총장 선거 참여 비율과 관련, “이사회에 임명권은 수용할 수 없고 선거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대의원의 지난달 결의 사항을 최종 승인했다.

교수평의회는 총장 선출과 관련, 직접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비율을 전임교원의 경우 70%로 하고 직원(18%)·학생(9%)·동문(3%) 등이 30%를 채우도록 한 방안을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대했다.

교수평의회·대자협 등은 전임교원 75%·직원 15%·학생 7%·동문 3%의 비율로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수평의회는 이날 독자적 총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구성원간 참여비율 등을 논의해 향후 대학의 혼돈 상태를 예고했다. 이대로 교수평의회·대자협 중심의 총장 선거 실시가 최종 확정되면 이사회의 임명 거부, 정실적 대의 활동 불가 등이 겹치면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가 더딜 수밖에 없어 지역 사회 안팎의 우려가 높다.

대학 내부 게시판에도 총장 선출을 둘러싼 구성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7일 총장 선거 준비를 위한 이사 4명, 총동창회장, 직원노조위원장, 교수평의회 회장, 총학생회장, 법인 사무처장 등 9인 위원회를 처음 열기로 해 향후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9억 재해보험 사기에 한우 밀도축까지

축협직원·농민·수의사·유통업자 짜고 서류 위조...전남경찰, 64명 적발

저성장 한우를 죽거나 앓은뱅이소로 위장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이 소를 다시 밀도축해 유통한 축협 직원과 축산농민, 정육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가 폐사하거나 부상 등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속여 가족재해보험금을 타내고 일부를 유통한 혐의(사기·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영압축협 직원 임모(52)씨 등 64명을 불구속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축협 직원 3명, 축산농민 31명, 수의사 4명, 소유통업자 15명, 정육유통업자 11명 등이다.

축협 직원과 축산농민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우와 젓소 등 463마리에 대해 폐사 또는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가족재해보험금 9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발육이 부진한 소는 제값을 많이 받기 힘든데 가족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 시중가의 80~10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진술했다.

수의사들은 현장에 가지 않고 허위로 검사서(폐사 판정)와 진단서(기립불능 판정)를 각각 1장당 8

만원과 5만원을 받고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모(47)씨 등 소·정육 유통업자들은 매몰처리해야 할 소 38마리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폐사하거나 기립불능 판정이 난 소는 식용 유통이 불가능하며 원인이 부상·난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다고 밝힌 경우에만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유통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인 한우·젓소가 죽거나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시중가 80% 수준의 보상금을 타낸 뒤 유통업자에게 판매해 이중으로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 직원들이 보험금 사기를 주도했고, 축산농민과 유통업자들이 동조했으며, 수의사들은 방조했다는 결론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지법 “확정 판결까지 메타프로방스 공사 중지”

담양군이 추진하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동규)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소유주 A씨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 A씨의 토지

에서 시행 중인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이 무효라는 광주고법 판결, 실시계획 인허가 효력정지와 토지수용재결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분안 판결이 나온다면 토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등산 정상 쓰레기 1t 발견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6일 무등산 정상부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철조각 1t 가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석별암 주변과 천왕봉(해발 1000m) 주변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장마철 기상상황을 고려해 9월초 수거할 예정이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지난달 규봉암 일원에서도 매몰쓰레기 4.5t을 찾아내 수거했다.

나경태 무등산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매몰된 쓰레기를 발견한 탐방객은 공원사무소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서해해경 적조 실시간 감시

서해해경이 서해안한 적조 발생을 실시간 감시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완도항VTS(해상교통관제센터)는 6일 서해안한 적조 발생시기에 맞춰 해양환경과 어업인 재산보호를 위해 실시간 적조감시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적조는 통상 8월에서 10월초에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해역의 경우 지난해 적조로 2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완도항VTS는 지난 2일부터 완도해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매일 4회 이상 VHF(초단파)통신을 통해 적조예찰 협조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상무금요시장 인도 위 화분 도로에 와르르~



서구 “상인이 고의 훼손” vs 노점상 “장사 방해 꿈수”...갈등 재연

6일 새벽에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치평동 평화방송 인근 인도에 놓아둔 대형화분들이 도로 위로 넘어져 있는 가운데 노점상인들과 구청 직원들이 뒤섞여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구청 직원들은 “노점 상행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잇따라 도로 정비와 미관 개선을 위해 화분을 설치했는데 상인들이 고의로 훼손했다”며 수사의뢰했고, 노점 상인들은 “구청과

협상 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화분을 설치한 것은 아만적 행위”라고 되받아쳤다.

서구는 치평동 일원 인도에 타잡고서 20여 년째 장사를 해온 상인 250여명을 인근 공원으로 이주시키려고 지난 2월부터 도로 정비에 나섰지만 상권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반발에 밀려 여태 해법을 못 찾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배경조기가 침동되는 청야초 인근 컨테이너 박스. 이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배경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방방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던 집이었습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 거친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밤에 나갑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와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매를 담당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열한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매로 5명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매 집은 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추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나 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시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축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에 입주시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원장’,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후원 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QR Code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오늘의 날씨		해동 05:25	달동 08:09		
		해집 19:50	달집 21:47		
지반 붕괴 조심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된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24/31	보성	흐림	23/29
목포	흐림	23/28	순천	흐림	23/30
여수	흐림	23/27	영광	흐림	23/30
나주	흐림	23/31	진도	흐림	23/28
완도	흐림	22/28	전주	흐림	24/29
구례	흐림	23/31	군산	흐림	23/28
강진	흐림	23/29	남원	흐림	23/30
해남	흐림	23/29	홍산도	흐림	20/24
장성	흐림	23/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
	면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 물때				◇ 생활지수	
		밀물	썰물		경고
		목포	04:17 / 09:23		보통
			16:10 / 21:26		보통
		여수	10:58 / 16:56		보통
			23:27 / 10:58		보통
◇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24/30	23/28	23/29	23/29	23/29	23/30